

2026

Field and Sea

단채널 HD 비디오, 컬러, 사운드
2분 (2:00), 반복 재생
16:9, 1920 × 1080

진행 중인 연작 《The Natural World》 중에서

2026년 키프로스에서 촬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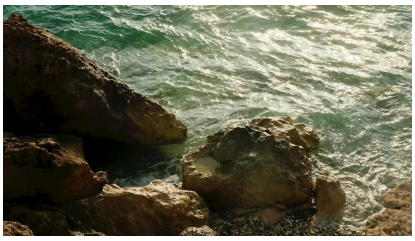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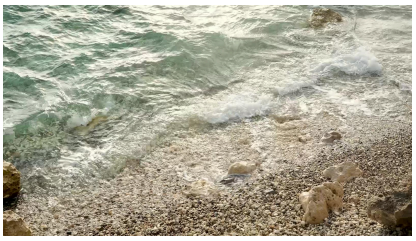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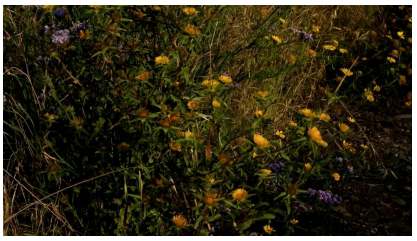
작품	《Field and Sea》
연도	2026
매체	단채널 HD 비디오, 컬러, 사운드
길이	2분 (2:00)
형식	16:9, 1920 × 1080
상영	프로젝션 또는 단일 스크린, 반복 재생
연작	《The Natural World》, 진행 중

"자연 속에서 시간은 느려지고, 주의가 돌아온다."

《Field and Sea》는 2026년 키프로스 해안에서 촬영되었다. 탁 트인 바다, 파도와 바위, 해안 위의 야생 풀들. 그 모두를 하나의 빛이 감싸고 있다.

이 영상은 빛과 물과 날씨를 담은 진행 중인 사진 연작 《The Natural World》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다. 사진이 하나의 순간을 붙잡는다면, 영상은 시간을 흐르게 둔다. 물이 움직이고, 풀이 휘고, 빛이 바뀐다. 그 밖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

프로젝션 또는 단일 스크린에서 반복 재생되도록 만들어진 이 작품은, 그것이 기록한 풍경과 같은 느린 주의를 보는 이에게 청한다.

《Field and Sea》(2026)의 스틸

작가 소개

루벤 반 스할름(1988년생)은 뉴욕, 암스테르담, 텔아비브를 오가며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시각 예술가다. 사진과 영상으로 빛과 물, 날씨, 그리고 자연 세계의 느린 시간을 기록한다.

상영 문의: info@rubenvanschalm.com